

## 『黃帝內經』의 ‘癱’ 字에 대한 고찰

又石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學教室<sup>1</sup>

陸相元<sup>1</sup> \*

### A Study of the character Chi(癱) in *Huangdineijing*(黃帝內經)

Yuk Sang-won<sup>1</sup> \*

<sup>1</sup>Dept. of Korean Medicine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Objective** :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refine the concept of the character Chi(癱) in *Huangdineijing*(黃帝內經), find out the difference between Chi(癱) and Zhi(瘳) and help use them correctly.

**Methods** : This study researched the types and frequency of Chi(癱) used in *Juzhenfangsongbanyinben*(聚珍倣宋版印本) edition of *Huangdineijing*(黃帝內經) and the mixed usage of Chi(癱) and Zhi(瘳) by comparing some versions of the work. I discerned the meanings of Chi(癱) and Zhi(瘳) by using opinions of annotators and dictionaries etc.

**Results & Conclusion** : The character Chi(癱) was used a total of 26 times in *Hwangjenaegyong*(黃帝內經). Chi(癱) appeared by itself just 5 times, whereas it was used as a compound such as in Chizong(癱瘓), Shunchi(瞶癱), Xianchi(痲癱) the rest of the time. Even though Chi(癱) and Zhi(瘳) were mixed in their use, it appears that the character Chi(癱) had to be used for *the symptomatic myoclonus*(筋間代性痙攣症狀) of a *chronic convulsion*(慢驚風), and the character Zhi(瘳) had to be used for *rabies*(狂犬病).

**Key Words** : Chi(癱), Chizong(癱瘓), chronic convulsion(癱瘓, 搖擗), cramp(痙攣), muscle spasm(肌肉痙攣), rabies(狂犬病).

## I. 緒 論

『黃帝內經』에는 ‘癱’자가 ‘癱瘓’, ‘瞶癱’, ‘痲癱’, ‘驚癱’, ‘掉癱’, ‘癱攣’, ‘拘癱’, ‘癱堅’처럼 다양하게 다른 글자와 결합하여 사용되었으며, 어느 곳에서는 ‘癱’자만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출간된

\* 교신저자 : 육상원,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33.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E-mail : ysw000@hanmail.net Tel : 063-290-1565  
접수일(2014년 01월27일), 수정일(2014년 02월12일),

게재확정일(2014년 02월17일).

책마다 ‘瘰’자와 ‘瘰’자를 혼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瘰’자가 어느 경우엔 病名으로 칭하고, 어느 곳에서는 症狀으로 사용되었다.

‘瘰’는 흔히 ‘瘰癧’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힘줄이 뻗뻗해지면서 오그라들거나 늘어지는 증상이 엇바뀌면서 오랫동안 되풀이되는 증상이라고 알고 있다.<sup>1)</sup> 최근에는 이 ‘瘰癧’이란 용어보다 ‘抽搦’, ‘振顫’ 등의 병증에 가까운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되고 있어서 더욱 ‘瘰癧’의 의미가 희박해졌으며, 아울러 『黃帝內經』뿐 아니라 후대의 저서에서도 ‘瘰’자와 ‘瘰’자가 혼용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黃帝內經』의 病名 및 用語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瘰癧’에 관련된 문헌 연구는 흔치 않았고, 張綱의 『中醫百病名源考』<sup>2)</sup>에 ‘瘰’와 ‘瘰’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 ‘瘰’자의 혼용에 문제가 있음이 더욱 명료해졌다.

이에 ‘瘰’자에 관련된 내용을 『黃帝內經』의 원문과 주석가의 견해를 참고하여 ‘瘰癧’의 개념을 정리하고, 혼란을 일으킬 ‘瘰’자와 ‘瘰’자의 정확한 의미를 사진과 관련된 몇 종의 의서를 참고하여 밝혀내어 정확한 사용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하였다.

## II. 本 論

### 1. 『黃帝內經』에 사용된 ‘瘰’字

여기에 인용한 『黃帝內經』의 原文은 中華書局聚珍仿宋版印本<sup>3)</sup>을 底本으로 하였으며, 방점은 『朝本黃帝內經素問』과 『精校黃帝內經素問』, 『精校黃帝內經靈樞』<sup>4)</sup>를 참고로 하였다. 『黃帝內經』에 기록된 ‘瘰’자를 『素問』과 『靈樞』의 각 편별로 검색하여 사용된 형태와 빈도를 조사하였다.

#### 1) 『黃帝內經·素問』에 사용된 ‘瘰’자 例文

-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편집 동의학사전. 서울. 도서출판 까치. 1990. p.76.
- 2) 張綱. 中醫百病名源考. 三河市. 人民衛生出版社. 1997. pp.173-184.
- 3) 王冰. 素問王冰注. 臺北. 臺灣中華書局. 1992. 王冰. 靈樞經(唐王冰撰).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 ① 診要經終論篇 第十六：“太陽之脈，其終也，戴眼，反折，瘰癧，其色白，絕汗乃出，出則死矣。”
- ② 玉機真藏論篇 第十九：“腎傳之心，病筋脈相引而急，病名曰瘰。”
- ③ 藏氣法時論篇 第二十二：“脾病者，身重，善飢肉痿，足不收行，善瘰，腳下痛。”
- ④ 大奇論篇 第四十八：㉞“心脈滿大，瘰癧筋攣。”/㉟“肝脈小急，瘰癧筋攣。”
- ⑤ 氣交變大論篇 第六十九：㉞“歲土太過，…甚則肌肉萎，足痿不收行，善瘰，腳下痛。”/㉟“復則大風暴發，…筋骨辟辟，肉瞶瘰，目視眩暈。”
- ⑥ 五常政大論篇 第七十：“升明之紀，…其藏心，…其病瞶瘰，其味苦。”
- ⑦ 六元正紀大論 第七十一：㉞“故民病少氣，瘡瘍癰腫，…嘔逆瘰癧，骨痛。”/㉟“少陽所至爲暴注，瞶瘰，暴死。”/㊱“熱至則身熱，吐下霍亂，…瞶瘰。”
- ⑧ 至真要大論 第七十四：“㉞太陰之復，…大雨時行，鱗見於陸，頭頂痛重，而掉瘰尤甚。”/㉟“少陽之復，大熱將至，…驚瘰效衄，”/㊱“面如浮埃，目乃瞶瘰，火氣內發。”/㊲“少陽司天，客勝則丹胗外發，…內爲瘰癧。”/㊳“厥陰在泉，客勝則大關節不利，內爲瘰癧拘瘰，外爲不便。”/㊴“諸風掉眩，皆屬於肝，…諸熱瘰瘰，皆屬於火。”

『素問』에는 ‘瞶瘰’가 5회로 제일 많이 사용되었고, ‘瘰癧’이 3회, ‘瘰癧’가 2회, 驚瘰, 掉瘰, 拘瘰는 각각 1회씩 사용되었으며, ‘瘰’자 단독으로 4회가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瘰’자는 총 17회 사용되었다.

#### 2) 『黃帝內經·靈樞』에 사용된 ‘瘰’자 例文

- ① 邪氣藏府病形 第四：㉞“心脈急甚者爲瘰癧，微急爲心痛引背，食不下。”/㉟“肝脈急甚者爲惡言，…微瀉爲瘰癧筋痺。”/㊱“脾脈急甚爲瘰癧。”
- ② 終始 第九：“太陽之脈，其終也，戴眼，反折，瘰癧，其色白，絕皮乃絕汗，絕汗則終矣。”
- ③ 經筋 第十三：“足少陰之筋，…病在此者，主瘰癧及瘰。”
- ④ 熱病 第二十三：㉞“熱病數驚，瘰癧而狂，取之

脈，以第四鍼。”/㉔“九曰，熱而瘳者，死。腰折癱瘳，齒噤齟也。”

- ⑤ 厥病 第二十四：“厥心痛，與背相控，善癱，如從後觸其心，僂僂者，腎心痛也。”
- ⑥ 周痺 第二十七：“故刺痺者，必先切循其下之六經，… 其癱堅，轉引而行之。”

『靈樞』에는 ‘癱瘳’이 5회로 제일 많이 사용되었으며, 癱攣, 癱癰, 癱堅이 각각 1회씩, ‘癱’자 단독으로 1회가 사용되어서 총 9회 사용되었다.

### 3) 『黃帝內經』에 사용된 ‘癱’자의 빈도와 유형

『素問』과 『靈樞』에 사용된 ‘癱’자를 각 편과 유형으로 분류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위와 같이 『黃帝內經』에 사용된 ‘癱’자는 총 26회였으나, ‘癱’자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는 5회에 불

가) 『素問』과 『靈樞』의 편별 사용 빈도

	素問 篇名	형태	빈도	靈樞 篇名	형태	빈도
1	診要經終論	癱瘳	1	邪氣藏府病形	癱瘳(2), 癱攣	3
2	玉機眞藏論	癱	1	終始	癱瘳	1
3	藏氣法時論	癱	1	經筋	癰癱	1
4	大奇論	癰癱(2)	2	熱病	癱瘳(2)	2
5	氣交變大論	癱, 癰癱	2	厥病	癱	1
6	五常政大論	癰癱	1	周痺	癱堅	1
7	六元正紀大論	癱瘳, 癰癱(2)	3			
8	至眞要大論	掉癱, 驚癱, 癰癱, 癱瘳, 拘癱, 癱	6			
합계			17			9

### 나) 유형별 분류

	癱瘳	癰癱	癱	癰癱	驚癱	掉癱	拘癱	癱攣	癱堅	합계
素問	3	5	4	2	1	1	1	0	0	17
靈樞	5	0	1	1	0	0	0	1	1	9
합계	8	5	5	3	1	1	1	1	1	26

과하고 나머지는 다른 글자와 함께 사용되었다. 특히 ‘癱瘳’이 8회, ‘癰癱’이 5회로 가장 여러번 사용되었다. 그런데 몇종의 『黃帝內經』을 찾아보니 ‘癱’자와 ‘瘳’자가 책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 2. ‘癱’와 ‘瘳’의 혼용

### 1) 『黃帝內經』의 판본별 비교

주로 影印本을 위주로 비교하였으며, 최근 活字本은 글자를 변경하여 출판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교할 의미가 없어서 몇 가지 책을 참고하였다.

가) 『聚珍倣宋版』<sup>5)</sup>

앞에서 사용예문을 제시한 것처럼 『素問』과 『靈樞』에 모두 ‘癱’자 한가지로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이는 아마도 가장 오래된 版本을 택하여 影印한 『四書叢書』와 다르게, 『四部備要』를 출판할 당시 전거

가 된 판본을 校訂한 후에 倣宋活字로 인쇄하였기 때문에 ‘瘰’로 통일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朝本黃帝內經素問』<sup>6)</sup>

乙亥字本の 影印本을 구하지 못하여 그것을 토대로 출간한 책이라서 검토하였다.

『藏氣法時論篇第二十二』의 “脾病者，身重善飢肉瘦，足不收行，善瘦脚下痛.”<sup>7)</sup> 이 한 구절에서만 ‘瘰’자를 사용하였고, 그 외는 모두 ‘瘰’자로 사용하였다.

다) 『黃帝內經素問靈樞張馬合編』<sup>8)</sup>

『素問』에는 ‘瘰癧’이 1곳, ‘瘰癧’이 2곳 사용되었고, 『靈樞』에는 5곳 모두 ‘瘰癧’으로 사용되었으며, 주석도 원문과 같은 글자를 사용하였다. ‘瘰癧’는 『素問』에만 5곳이 나오는데 3곳은 ‘瘰癧’로, 2곳은 ‘瘰癧’로 사용되었다. 또 ‘瘰癧’는 『素問』같은 행간 2곳에 ‘瘰癧’와 ‘瘰癧’가 혼용되었으나 張志聰과 馬蒔의 주석은 모두 ‘瘰癧’를 사용하였으며, 『靈樞』에는 ‘瘰癧’를 사용하였다. 특히 『靈樞』에는 이 ‘瘰癧’ 이 외는 모두 ‘瘰’자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같은 책, 같은 단어에서도 ‘瘰’와 ‘瘰’가 일관성 없이 혼용되고 있었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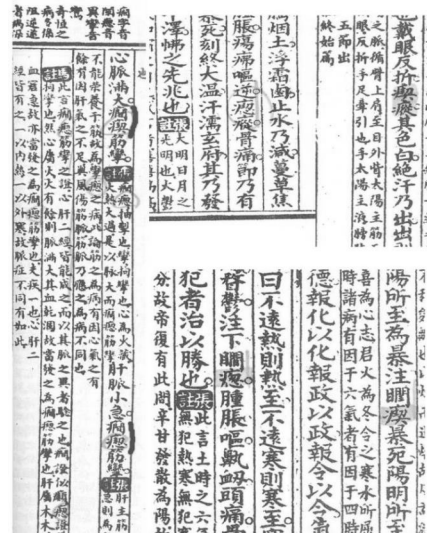


그림 1. 『醫學入門』瘰癧, 瘰癧, 瘰癧의 사용례

라) 『類經』<sup>10)</sup>

『類經』은 대성문화사에서 출판한 영인본을 검토하였다. 『黃帝內經』의 原文(會通類제외)에 ‘瘰’자가 19곳, ‘瘰’자가 4곳에 사용되어 총 23곳에서 보였다.<sup>11)</sup> 또한 원문에는 ‘瘰’자를 사용하고, 그 주석에 ‘瘰’자를 사용한 곳도 있었다.<sup>12)</sup> 註釋에도 거의 ‘瘰’자가 사용되었고, 4곳에서만 ‘瘰’자가 사용되어 대체적으로 ‘瘰’자가 많이 사용되었다.

## 2) 후대 다른 서적의 사용례

가) 『東醫寶鑑』<sup>13)</sup>

- 10) 張介賓. 類經(上下). 서울. 大星文化社. 1982.
- 11) 上揭書. p.122, 257, 298, 321, 378, 380, p.417(瘰), 489, 491(瘰癧; 註釋同一), 498(善瘰; 註釋同一), 558(善瘰; 註釋同一), 562, 570, 612, 615, 619, 634, 638, pp.130-131.
- 12) 上揭書. p.417. 원문 “太陽之脈，其終也，戴眼反折瘰癧，其色白，絕汗乃出，出則死矣。” 註釋 “瘰者筋之急也，瘰者筋之緩也.”
- 13) 허준. 東醫寶鑑. 서울. 圖書出版海誠社. 단기4327. 한의학 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사이트의 원문 이미지 참고: [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BookBiblio.jsp?srchTab=1&DataID=KIOM\\_A341\\_Z\\_001&DataName=%E6%9D%B1%E9%86%AB%E5%AF%B6%E9%91%91%E9%8F%99%EC%9D%98%EB%B3%B4%EA%B0%90&ssot](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BookBiblio.jsp?srchTab=1&DataID=KIOM_A341_Z_001&DataName=%E6%9D%B1%E9%86%AB%E5%AF%B6%E9%91%91%E9%8F%99%EC%9D%98%EB%B3%B4%EA%B0%90&ssot)

- 5) 王冰. 素問王冰注. 臺北. 臺灣中華書局. 1992. /王冰. 靈樞經(唐王冰撰).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 6) 전국한의학대학교 원전학교실. 懸吐校勘朝本黃帝內經素問. 서울. 집문당. 2013.
- 7) 上揭書. p.96.
- 8) 馬蒔, 張志聰 合註. 黃帝內經 素問靈樞合編.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81.
- 9) 上揭書. 素問 p.117, 152, 180, 328, 500, 506, 517, 602, 607, 611, 631, 637, 656. 靈樞 p.30, 72, 145, 203, 206, 213, 229. pp.32-33.

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의 원문이미지자료를 참고하여 검토하였다. 『黃帝內經·玉機眞藏論篇』에서 인용한 “腎傳之心, 病筋脈相引而急, 病名曰癭.”란 구절이 3곳에 보이는데, 아래 ①, ②, ③처럼 2곳은 ‘癭’자로 되어있고, 1곳에는 ‘瘰’자로 되어있으며, ④, ⑤처럼 전체적으로 두 글자를 혼용하고 있었다.

① 【心病證】 “腎傳之心, 病筋脈相引而急, 病名曰癭.”

[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PopOrgImg.jsp?DataID=KIOM\\_A341\\_Z\\_001&id=KIOM\\_A341\\_4\\_001\\_0045&cur=556](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PopOrgImg.jsp?DataID=KIOM_A341_Z_001&id=KIOM_A341_4_001_0045&cur=556)

② 【腎心痛】 “腎傳之心, 病筋脈相引心下急痛, 病名曰癭.<內經>”

[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PopOrgImg.jsp?DataID=KIOM\\_A341\\_Z\\_001&id=KIOM\\_A341\\_4\\_001\\_0073&cur=1050](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PopOrgImg.jsp?DataID=KIOM_A341_Z_001&id=KIOM_A341_4_001_0073&cur=1050)

③ 【臟腑病緩傳】 “腎傳之心, 筋脈相引而急, 病名曰瘰.”

[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PopOrgImg.jsp?DataID=KIOM\\_A341\\_Z\\_001&id=KIOM\\_A341\\_4\\_001\\_0093&cur=1358](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PopOrgImg.jsp?DataID=KIOM_A341_Z_001&id=KIOM_A341_4_001_0093&cur=1358)

④ 【脾病虛實】 “脾實則身重, 善肌肉痿, 足不收, 行善瘰, 腳下痛”

[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PopOrgImg.jsp?DataID=KIOM\\_A341\\_Z\\_001&id=KIOM\\_A341\\_4\\_001\\_0046&cur=564](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PopOrgImg.jsp?DataID=KIOM_A341_Z_001&id=KIOM_A341_4_001_0046&cur=564)

⑤ 【膀胱絕候】 “膀胱之脈爲足太陽, 其終也, 載眼, 反折, 瘰瘰, 其色白, 絕汗乃出, 絕汗出則死矣.<內經>”

[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PopOrgImg.jsp?DataID=KIOM\\_A341\\_Z\\_001&id=KIOM\\_A341\\_4\\_001\\_0053&cur=605](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PopOrgImg.jsp?DataID=KIOM_A341_Z_001&id=KIOM_A341_4_001_0053&cur=605)

나) 『醫學入門』<sup>14)</sup>

『醫學入門』에는 63회 모두 ‘瘰’자를 사용하였고, ‘癭’자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音字」篇에 “癭: 音熾, 癭也; 瘰: 音係.”<sup>15)</sup>라는 내용을 보면 ‘癭’자를

瘰의 의미로 풀이하였으므로, 모두 ‘瘰’자를 사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黃帝內經』의 여러 판본과 그 외 『黃帝內經』을 인용한 주요 서적에서 두 글자를 혼용하고 있었다. 물론 인터넷에 유통되는 전산화 작업을 한 파일이나, 이를 토대로 출판한 서적에서도 혼용하고 있었다.<sup>16)</sup> 따라서 서로 다른 이 두 글자의 의미를 추적해보았다.

### 3. ‘癭’와 ‘瘰’의 의미

#### 1) ‘癭’자의 의미

가) 『黃帝內經』 원문 및 주석

『素問·玉機眞藏論』에 “腎病이 심으로 전이되면 근맥이 서로 당기면서 팽팽해지는데(緊急), 이 병명을 癭라고 한다.(腎傳之心, 病筋脈相引而急, 病名曰癭.)”<sup>17)</sup> 하였는데, 이 앞의 원문에 “風寒이 인체의 피모에 침입하여 치료되지 않으면 肺로 들어가니 병명이 肺癰요, 간으로 전입하면 病名이 肝癰요,脾로 전입하면 病名이 脾風이요, 신으로 전입하면 病名이 疝瘰요, 心으로 전입하면 病名이 癭이다.”<sup>18)</sup>라고 한 내용을 보면 癭는 風寒이 침입하여 치료되지 않아 점차 腎에서 心으로 전이된 筋脈이 수축되면서 팽팽하게 긴장되는 증상이 있는 病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즉 여기서 ‘癭’는 病名으로 사용된 예이다.

張介賓은 『素問·藏氣法時論』의 “脾病者, … 足不收, 行善瘰, 腳下痛.” 주석에 “瘰는 수축을 떨면서 경련하는 것이다.(瘰者手足掉掣也)”라고 하였고, 『素問·大奇論篇』의 “心脈滿大, 癭瘰筋攣. 肝脈小急, 癭瘰筋攣.” 주석에 “瘰는 音이 熾이고, 수축하면서 경련한다.(瘰, 音熾, 抽搐也.)”고 하였으며, 또 『靈樞經

16) 전국한의과대학심계내과학교실. 心系內科學. 서울. 군자출판사. 2006. p.366. “瘰瘰” /간계내과학교수공저. 肝系內科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2001. p.177. “筋瘰”

17) 王冰. 素問王冰注. 臺北. 臺灣中華書局. 1992. 卷六-五.

18) 上揭書. 卷六-五. 「玉機眞藏論」 “今風寒客於人, 使人毫毛畢直, 皮膚閉而爲熱, 當是之時, 可汗而發也. … 弗治, 病人舍於肺, 名曰肺癰, 發欬上氣. 弗治, 肺即傳而行之肝, 病名曰肝癰, 一名曰厥, 脅痛出食, … 弗治, 肝傳之脾, 病名曰脾風, … 弗治, 脾傳之腎, 病名曰疝瘰, 少腹冤熱而痛, 出白, 一名曰蠱, … 弗治, 腎傳之心, 病筋脈相引而急, 病名曰癭.”

14) 李梴. 醫學入門. 상해. 上海錦章圖書局印行. 년도미상.

15) 上揭書. p.45

筋篇』의 “足少陰之筋, … 病在此者, 主癰瘰及瘰” 주석에 “癰는 팽팽하게 당기는 것이다.(癰, 牽急也.)” 라고 하였다.<sup>19)</sup>

그리고, 馬蒔는 「至眞要大論」의 “諸熱瘰癧, 皆屬於火.” 주석에 “癰는 근육이 동요하는 것이다.(癰者肉動也.)” 라고 하였다.

이처럼 여러 篇의 주석에서 掉掣, 抽搦, 牽急, 肉動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癰’는 근육이 팽팽하게 수축되고 떨리면서 경련을 하는 症狀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즉 여기서 ‘癰’는 症狀名으로 사용된 예이다.

#### 나) 사전

①『說文解字注』<sup>20)</sup>에는 “癰는 小兒癰瘰病이다.”라고 하였는데, 段玉裁注에 “『急就篇』<sup>21)</sup>에도 癰瘰(癰疽癰瘰瘰癧)이라는 말이었는데, 師古<sup>22)</sup>는 즉 요즘의 癰病이라고 하였다. 생각해보니 지금의 小兒驚病이다. 癰는 잡아당긴다(掣)는 말이고, 瘰은 늘어진다(縱)는 말이다. 『漢書·藝文志』에 癰瘰方이 있다.”라고 하였다.

②『中文大辭典』<sup>23)</sup>에는 “癰는 癰瘰이니 小兒의 病名이다. 『說文』에 ‘癰는 小兒癰瘰病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癰를 소아의 癰瘰病으로 본 것으로 당시에 病名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漢語大詞典』<sup>24)</sup>에는 癰를 ‘筋脈의 瘰癧’이라고 보았다.

④『辭源』<sup>25)</sup>에는 “病名으로 筋脈이 경련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病名으로 보았다.

⑤『明文漢韓大字典』<sup>26)</sup>에는 “小兒癰瘰病, 어린이이 경기병 체, 경풍체, 속음은 계.”라고 하였다.

⑥『中韓大辭典』<sup>27)</sup>에는 “癰 chi 경기병 계(체).”라고 하였다.

## 2) ‘瘰’자의 의미

가)『黃帝內經』 원문 및 주석

원문과 주석에 ‘瘰’, ‘瘰’를 혼용하였기 때문에 의미상 차이를 찾기 어려웠다. 다만 『類經』에 “甚則肌肉萎, 足痿不收, 行善瘰, 脚下痛.”의 주석에 “瘰는 잡아당기면서 경련을 일으킨다(抽掣).”<sup>28)</sup>고 하였으나, 결국 두 글자 모두 ‘근육경련’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 나) 사전

①『說文解字注』에서는 ‘瘰’자를 찾지 못하였다.

②『中文大辭典』<sup>29)</sup>에는 ‘瘰’자를 狂, 瘰癧, 癰疾, 狂犬 등의 의미로 보았다.

③『漢語大詞典』<sup>30)</sup>에는 “첫째 발음이 [zhi《集韻》<sup>31)</sup> 征例切]는 미친병(癲狂)이니, 『左傳』에 ‘한 나라의 개가 미치면 물지않는 경우가 없다.’고 하였고, 다음에 [chi《集韻》 詰計切] 발음은 中醫에서 瘰癧症狀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이는 ‘瘰’자를 발음 따라 두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④『辭源』<sup>32)</sup>에도 위의 『漢語大詞典』처럼 『集韻』의 발음에 따라 zhi는 ‘狂’으로 보았고, chi는 ‘瘰瘰’을 참고하라 하였는데, 瘰瘰을 수족경련이 일어나는

19) 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380.

20) 許慎著.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352. “癰: 小兒癰瘰病也. (急就篇亦云癰瘰. 師古云 卽今癰病 按今小兒驚病也. 癰之言掣也, 瘰之言縱也. 藝文志有癰瘰方.)”

21) 急就篇: 전한의 말기 元帝(재위 BC48~33) 때 史游가 지은 책으로, 당시의 상용 한자 약 1,900자를 기록하였다.

22) 師古: 唐代的 顏師古(581년~645년). 漢書에 주석하고, 五經正義의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23)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臺北市.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6권 p.796. “癰: 癰瘰, 小兒病名. 說文: 癰, 小兒癰瘰病也.”

24) 羅竹風主編. 漢語大詞典. 上海. 한어대사전출판사. 1994. 권8 p.345.

25)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縮印合訂本). 中華商務聯合印刷有限公司. 香港. 1987. p.1162. “病名, 筋脈瘰癧.”

26) 김혁제, 김성원 편저. 明文漢韓大字典. 서울. 明文堂. 1984. p.822.

27) 康寔鎮편저. 進明中韓大辭典. 서울. 進明出版社. 1993. p.370.

28) 張介賓. 類經(上下).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558.

29)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臺北市.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6권 p.787. “瘰: ①狂也. [集韻]“瘰, 狂也.” ②瘰癧, 癰疾. [集韻]“瘰, 癰瘰, 癰疾.” ③狂犬. 與狝通.”

30) 羅竹風主編. 漢語大詞典. 上海. 한어대사전출판사. 1994. 권8 p.335. “瘰: ① [《集韻》 征例切] 癲狂. 《左傳·哀公十二年》: “國狗之瘰, 無不噬也.” ② [chi《集韻》 詰計切] 中醫指瘰癧的症狀.”

31) 集韻: 1039년(北宋 寶元2년) 丁度 등이 왕명을 받들어撰한 것이다.

32)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縮印合訂本). 中華商務聯合印刷有限公司. 香港. 1987. p.1161.

驚風으로 風病이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⑤『明文漢韓大字典』<sup>33)</sup>에는 “癩: 狂也, 미칠 계. 狂犬, 미친개 계. 癩癩, 癩疾, 간질병, 지랄병 계.”라고 하였다.

⑥『中韓大辭典』<sup>34)</sup>에는 “癩: ㉠zhi 미칠 계. ㉡chi ‘癩’와 통용.”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癩’와 ‘癩’의 의미를 살펴보면, 後漢의 『說文解字』에는 ‘癩’자가 없으나, 『左傳·哀公十二年』에 “國狗之癩, 無不噬也.”라는 글을 볼 때 당시에 ‘癩’자는 미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許慎이 누락시킨 것을 보면 그 때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글자로 생각된다. 또한 『黃帝內經』과 몇몇 사전, 『左傳』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癩’자는 ‘驚癩’, ‘癩癩’ 등의 용어처럼 驚風의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점차 ‘驚癩’, ‘癩癩’, ‘拘癩’ 등의 용어처럼 사용되면서 驚風으로 인한 癩癩症狀의 의미를 벗어나서 다른 원인에 의한 단순히 抽搐, 筋肉癩癩症狀 등의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癩’자는 狂, 狂犬(狺)의 의미로 본래 犬의 癩病을 일컫었는데, “나라의 개들이 미치면 물지 않는 경우 없다.”는 내용처럼 사람이 미친개한테 물려서 생기는 狂犬病的 의미까지 과생하게 되었다. 또 ‘癩’는 본래 犬疾이나 사람의 病名으로 전환된 것은 狂犬에 물리면 사람이 미치게 되고, 怒하여 미쳐도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용된 것이다.<sup>35)</sup> 또 ‘癩’과 ‘癩’에 대하여 張綱은 “그 시대에 身熱勢急者를 癩, 身冷勢緩者를 癩라고 하였으니, 癩은 요즘의 急驚風이고 癩는 慢驚風이다.”<sup>36)</sup>고 하였다.

그후 北宋의 『集韻』등의 韻書에 ‘癩’자의 발음에 따라 의미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集韻』에 “癩는 癩癩이니 癩疾이다.”<sup>37)</sup>라고 한 것을 보면

宋代에 이르러서 ‘癩’자가 狂과 狺(미친개 계)의 뜻 외에 근육경련을 뜻하는 ‘癩癩(掣縱)’의 의미로도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張綱은 “‘癩’를 ‘癩’로 오인하여 두 글자를 같다고 보게 된 것이 반드시 『集韻』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혹 본래 宋나라 초기 사람들이 이 두 글자의 모양과 소리가 비슷해서 잘못 혼용하면서 점차 俗言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集韻』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관아에서 같은 글자로 定論을 짓게 되었을 것이다. 宋이후의 판본에 ‘癩’자를 ‘癩’자로 바꾸어 古書를 제멋대로 고친 것이 많다는 것이 모두 그 증례이다.”<sup>38)</sup>라고 하였다.

그리고 『說文解字』에 “癩, 小兒癩癩病也.”라고 하였으니, ‘癩’는 당기고 늘어짐이 번갈아 계속되는 病이다. 하지만 癩癩은 수축은 강하게 발작하고 이완은 잠깐씩 일어나기 때문에 옛사람들이 ‘癩癩’을 습관적으로 ‘癩’로 명칭하였다.<sup>39)</sup> 결국 ‘癩’는 ‘癩癩’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총괄하자면 ‘癩’는 『素問·玉機眞藏論』과 『說文解字』의 “癩, 小兒癩癩病也.”처럼 病名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筋脈이 癩癩하는 病症에 다양한 유형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런 病症이 小兒에게 많이 나타나므로 先秦시대에는 小兒의 筋脈이 당기는 病을 ‘癩’라 칭하였지만, 唐初 顏師古의 말처럼 癩疾을 의미하고, 清代의 段玉裁처럼 小兒驚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sup>40)</sup> 그리고 驚風과 手足癩癩의 의미로 사용할 때는 狂犬의 의미인 ‘癩’자 대신 ‘癩’자를 사용해야 한다.

#### 4. ‘癩癩’과 ‘驚癩’의 의미

『黃帝內經』에서 ‘癩’자와 함께 사용된 例중에 가장 빈도가 높은 ‘癩癩’과 ‘驚癩’를 선택하여 주석과 사전을 참고로 의미를 살펴보았다.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이후로는 ‘癩’자를 筋肉癩癩을 의미하는 ‘癩’자

33) 김혁제, 김성원 편저. 明文漢韓大字典. 서울. 明文堂. 1984. p.819.

34) 康寔鎮편저. 進明中韓大辭典. 서울. 進明出版社. 1993. p.3440.

35) 張綱. 中醫百病名源考. 三河市. 人民衛生出版社. 1997. p.181.

36) 上揭書 p.173.

37)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臺北市.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6권 p.787. “[集韻]‘癩, 癩癩, 癩疾.’”

38) 張綱. 中醫百病名源考. 三河市. 人民衛生出版社. 1997. pp.182-183.

39) 上揭書. p.174.

40) 許慎著,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352. “癩: 小兒癩癩病也. 段注: 急就篇亦云癩癩. 師古云 卽今癩病 按今小兒驚病也.”

로 바꾸며 ‘痙攣’도 ‘痙攣’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 1) 痙攣

『黃帝內經』의 原文에 ‘痙攣’이 8회 사용되었지만 그 뜻을 직접 설명한 곳은 없고, 『靈樞·邪氣臟腑病形篇』의 “心脈急甚者爲痙攣”처럼 어떠한 상황에 나타나는 病症으로 기록되었다.

張介賓은 “팔다리가 당기고 늘어지는 것이 痙攣이다.(肢體抽掣曰痙攣)”라고 하여 “痙, 抽掣也”와 같이 보았고, 또 “痙攣에 痙는 拘攣하고, 攣은 弛縱하는 것이다.(痙攣, 痙爲拘攣, 攣爲弛縱.) 그리고 筋脈이 당기고 팽팽한 것을 痙라하고, 길게 늘어지는 것을 攣이라한다.(筋脈引急曰痙, 弛長曰攣.)”<sup>41)</sup>고 하였다.

張志聰은 “痙는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攣은 느슨하게 늘어지는 것이다.(痙者急而收引, 攣者縱而懈弛.)”<sup>42)</sup>라고 하였다.

『漢語大詞典』에 “痙攣은 驚風으로 痙病이다. 또 광범위하게 手足痙攣을 지칭한다.”<sup>43)</sup>고 하였다.

『中文大辭典』에 “痙攣은 小兒驚病이며, 혹 痙攣이라고 한다. 痙攣은 筋肉痙攣인데, 속칭 動風이라 한다.”<sup>44)</sup>라고 하였다.

『中醫大辭典』에는 “痙攣은 證名으로 抽掣, 搐搦, 抽風 등으로 불린다.”<sup>45)</sup>고 하였다.

이처럼 痙攣은 筋脈이 拘急하고 수축되는 것을 痙, 筋脈이 弛緩되면서 퍼지는 것을 攣이라 하였는데, 임상소견상 痙와 攣이 빈번하게 교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두 글자를 합하여 痙攣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후대에 抽掣으로 불리지만 抽掣의 글자를 풀어보면 抽는 수축하고 당긴다(收, 引)는 의미가 있

고, 搐은 끌어당기고 떨리며 오그라들며 경련한다(牽動, 抽縮)는 뜻이 있어서 합하면 결국 收縮의 뜻만 있고 弛緩의 의미는 없다. 따라서 拘急과 弛縱이 반복해 나타나는 痙攣과는 의미가 다르다. 하지만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사용하다보니 요즘엔 痙攣이란 용어 대신 抽掣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sup>46)</sup> 그렇지만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는 痙攣症狀이나 驚風에는 抽掣보다 痙攣이 더 합당하므로, 향후 의미상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사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상을 총괄하면 痙攣은 驚風, 痙病의 옛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며, 또 『黃帝內經』에 驚痙, 痙痙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된 것을 미루어보면 痙攣이란 驚風 및 그 발병시 手足의 구급과 이완이 반복되는 痙攣症狀을 총칭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2) 瞶痙

『黃帝內經』의 原文에 ‘瞶痙’은 『素問』에만 총 5회 사용되었다. 이 단어도 原文에는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으며, 모두 病症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주석과 사전을 이용해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張介賓과 張志聰은 모두 “瞶痙는 떨리면서 당기는 병증이다.(瞶痙, 動掣也.)”<sup>47)</sup>고 하였다. 그러나 馬蒔는 “①눈이 떨리는 것이 瞶, 몸이 昏厥하는 것이 痙이다.(目眇[眇]爲瞶, 身厥爲痙) / ②病이 눈에 나타나면 瞶이고, 몸에 나타나면 痙이다.(病形於目爲瞶, 形於體爲痙.)”<sup>48)</sup>라고 하여 瞶은 눈떨림, 痙는 몸의 경련으로 나누어 해석하기도 하였고, 또 「至眞要大論」‘目乃瞶痙’의 주석에서는 “눈의 떨림.(目瞶痙)”<sup>49)</sup>이라고 하여 瞶과 痙를 나누지 않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瞶’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漢韓大辭典』에 “瞶, 目動也. ㉠눈꺼풀이 떨린다. ㉡떨린다. ㉢눈을 깜박

41) 張介賓. 類經(上下).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491, 638, 122.

42) 馬蒔, 張志聰 合註. 黃帝內經 素問靈樞合編.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81. 靈樞 p.33.

43) 羅竹風主編. 漢語大詞典. 上海. 한어대사전출판사. 1994. 권8 p.345.

44)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臺北市.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796. “痙攣: 小兒驚病也. 或作痙攣. 按痙攣即筋肉抽掣, 俗謂之動風.”

45) 李經緯 主編. 中醫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1938.

46) 楊思淵, 張樹生, 傅景華 主編. 中醫臨床大全(上).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p.250.

47) 張介賓. 類經(上下).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562. 馬蒔, 張志聰 合註. 黃帝內經 素問靈樞合編.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81. 素問 p.506.

48) 上揭書(張馬合編). 素問 p.517, 607. ‘目眇’는 의미가 불동하여 인민위생출판사의 素問注證發微를 참고하여 ‘目眇’로 해석함.

49) 上揭書(張馬合編). 素問 p.631.



이다.”<sup>50</sup>)라고 하여 馬蒔의 주석같이 ‘눈의 떨림’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氣交變大論」의 ‘肌肉瞤酸’이나 ‘肉瞤瘳’(馬蒔注: 肉之瞤瘳)처럼 ‘肌肉의 떨림’이란 의미로 사용되었고, 『中醫大辭典』에는 “瞤은 症狀名으로 肌肉, 皮膚, 身體, 眼瞼 등의 躁動을 形容한 것이고, 瞤瘳는 抽掣症狀를 수반한 肌肉이나 眼胞의 躁動이다.”<sup>51</sup>)라고 하였다. 그리고 『醫學入門』에서는 “瞤瘳는 근육이 떨리는 증상이다.(瞤瘳, 肉跳也.)”<sup>52</sup>)라고 주석하였고, 『東醫寶鑑』에는 ‘瘳’, ‘身瘳’, ‘脣口瘳動’, ‘筋傷肉瘳’, ‘眼瘳’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는 ‘瘳’자가 눈의 떨림에서 확충되어 신체의 특정부위의 떨림에 까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53</sup>)

총괄해보면 『黃帝內經』에서 ‘瞤瘳’는 안검이나 몸의 근육이 떨리는 증상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III. 考察 및 結論

이상 『黃帝內經』에 나오는 ‘瘳’자에 대하여 원문과 주석을 검토하고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냈다.

첫째, 『黃帝內經』에 사용된 ‘瘳’자는 총 26회였으며, ‘瘳’자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는 5회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다른 글자와 함께 사용되었는데 ‘瘳瘳’이 8회, ‘瞤瘳’가 5회, ‘瘳瘳’가 3회, 그리고 ‘驚瘳’, ‘掉瘳’, ‘拘瘳’, ‘瘳擊’, ‘瘳堅’은 각각 1회씩 사용되었다.

둘째, 底本으로 삼은 『聚珍倣宋判印』본에는 원문 전체가 ‘瘳’자 한 종류만 사용되었고, 『朝本黃帝內經素問』에는 1곳에 ‘瘳’자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瘳’자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黃帝內經素問靈樞張馬合編』, 『類經』에는 ‘瘳’자와 ‘瘳’자가 혼용되었다. 그리고 원문의 일부만 인용한 『東醫寶鑑』도 혼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醫學入門』에는 모두 ‘瘳’자로 사

용되었다.

셋째, 『黃帝內經』에서 ‘瘳’자는 일부에서 病名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症狀명칭으로 사용되었다. ‘瘳’자는 小兒瘳瘳病, 驚風, 瘳病을 의미하였으며, 발병시에 나타나는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는 手足瘳瘳症狀를 포함하여 사용되었고, ‘瘳瘳’을 함축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瘳’자는 초기에 狂, 獠(狂犬)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北宋의 『集韻』에 瘳瘳, 瘳疾로 풀이하면서 두 글자가 혼용되었고, 宋代에 많은 醫書를 출간하면서 오류가 남게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慢驚風 등의 질환에 발생하는 手足瘳瘳에는 ‘瘳’자를 사용하고, 狂症이나 狂犬病에는 ‘瘳’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넷째, 『黃帝內經』에서 ‘瘳瘳’은 驚風, 瘳病과 그 발병시 筋脈의 拘急과 弛縱이 반복되는 手足瘳瘳症狀를 총칭하였으므로, 筋脈의 收縮瘳瘳를 뜻하는 ‘抽掣’과는 의미상 차이가 있다고 본다. 또 ‘瞤瘳’는 눈주변의 瘳瘳뿐 아니라 肌肉이 떨리는 症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參考文獻

<단행본>

1. 전국한의학대학교 원전학교실 編. 懸吐校勘 朝本黃帝內經素問. 서울. 集文堂. 2013. pp.58-400
2. 馬蒔, 張志聰 合註. 黃帝內經 素問靈樞合編.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81. 素問 p.117, 152, 180, 328, 500, 506, 517, 602, 607, 611, 631, 637, 656. 靈樞 p.30, 72, 145, 203, 206, 213, 229. pp.32-33.
3. 楊思澍, 張樹生, 傅景華. 中醫臨床大全(上).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p.250.
4.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편집 동의학사전. 서울. 도서출판 까치. 1990. p.76.
5. 王冰. 素問王冰注. 臺北. 臺灣中華書局. 1992.
6. 王冰. 靈樞經(唐王冰撰).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7. 李樾. 醫學入門. 上海. 上海錦章圖書局印行. 년도미상. p.45, 350.
8. 張介賓. 類經(上下). 서울. 大星文化社. 1982.

50)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漢韓大辭典, 단국대학교출판부. 서울. 2006. 10권 p.172.

51) 李經緯 主編. 中醫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1720.

52) 李樾. 醫學入門. 上海. 上海錦章圖書局印行. 년도미상. p.350.

53) 허준저, 이남구현도. 懸吐註釋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11. p.270, 278, 514, 632, 714, 788.

p.122, 257, 298, 321, 378, 380, 417, 489,  
491, 498, 558, 562, 570, 612, 615, 619,  
634, 638. pp.130-131.

9. 張綱. 中醫百病名源考. 三河市. 人民衛生出版社. 1997. pp.173-184.
10. 楊思樹, 張樹生, 傅景華 主編. 中醫臨床大全(上).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p.250.
11. 전국한의과대학심계내과학교실. 心系內科學. 서울. 군자출판사. 2006. p.366.
12. 간계내과학교수공저. 肝系內科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2001. p.177.
13. 허준저, 이남구현토. 懸吐註釋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11. p.270, 278, 514, 632, 714, 788.

#### <사전류>

1. 吳克潛. 病源辭典. 樂群出版公司出版. 1936. p.954.
2. 許慎.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349, 352.
3. 김혁제, 김성원 편저. 明文漢韓大字典. 明文堂. 서울. 1984. p.819, 822.
4.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漢韓大辭典, 단국대학교출판부. 서울. 2006. 9권 p.1018, 1033, 1038, 10권 p.172.
5.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縮印合訂本). 中華商務聯合印刷有限公司. 香港. 1987. pp.1161-3.
6. 郭霽春主編. 黃帝內經詞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5. p.917, 941, 639.
7. 張登本, 武長春主編. 內經詞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360-363.
8. 康寔鎭편저. 進明中韓大辭典. 서울. 進明出版社. 1993. p.370, 3440.
9.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臺北市. 中國文化大學出版部. 中華民國74年. p.787.
10. 羅竹風主編. 漢語大詞典. 上海. 한어대사전출판사. 1994. 권8 p.335, 345.
11. 李經緯 主編. 中醫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版社. 1995. p.1720, 1938.

#### <전자매체>

1. 허준. 東醫寶鑑. 서울. 圖書出版海誠社. 단기 4327. 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사이트: ([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BookBiblio.jsp?srchTab=1&DataID=KIOM\\_A341\\_Z\\_001&DataName=%E6%9D%B1%E9%86%AB%E5%AF%B6%E9%91%91%E B%8F%99%EC%9D%98%EB%B3%B4%EA%B0%90\)&ssot](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BookBiblio.jsp?srchTab=1&DataID=KIOM_A341_Z_001&DataName=%E6%9D%B1%E9%86%AB%E5%AF%B6%E9%91%91%E B%8F%99%EC%9D%98%EB%B3%B4%EA%B0%90)&ssot))